

보편적 돌봄과 장소화의 문제

-김혜순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김희진(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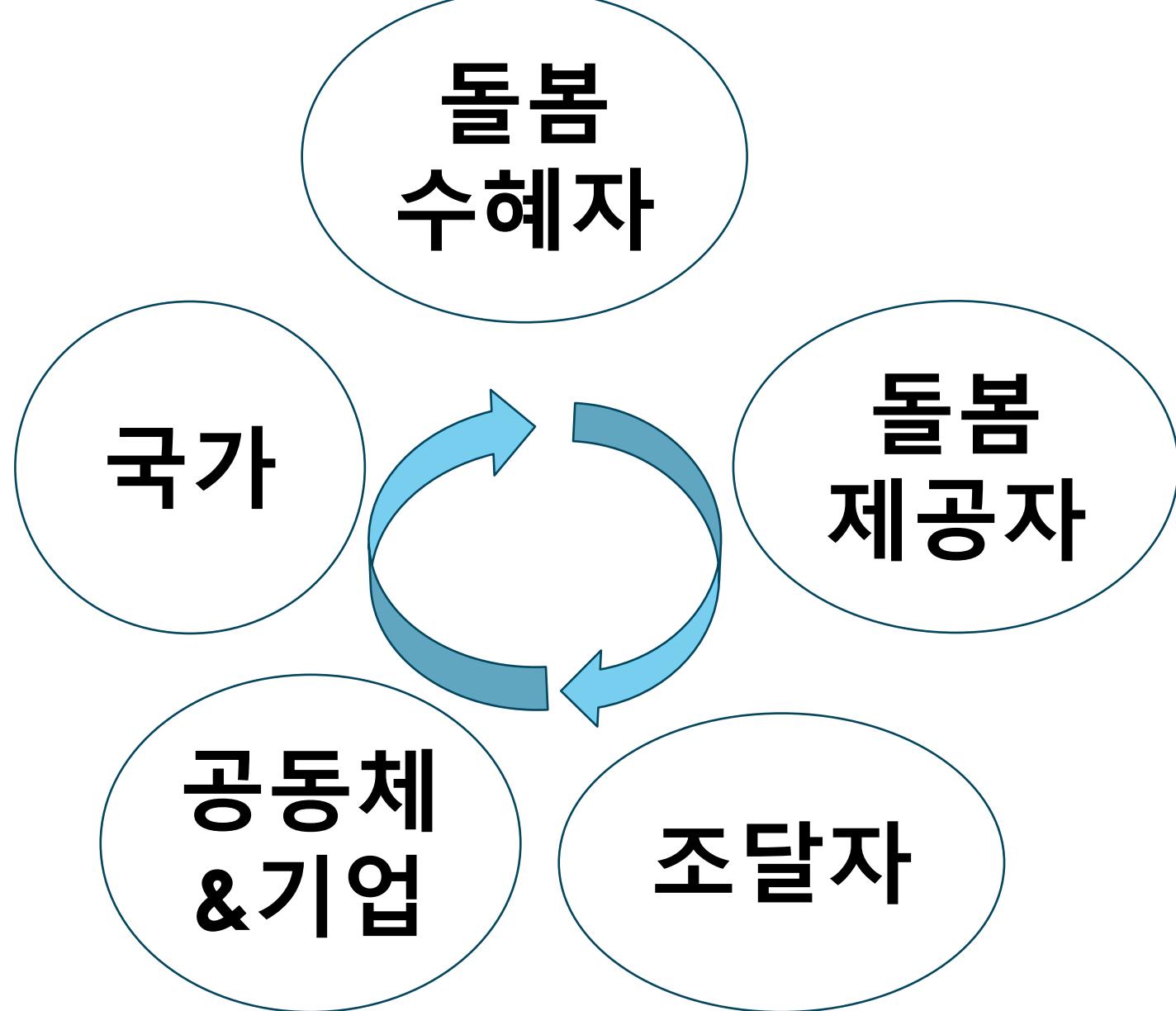
1. 보편적 돌봄의 기준 개념에 대한 재고

●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문제 가시화
그러나 여전히 돌봄은 특정 대상에 한정
불평등한 돌봄의 분배, 돌봄의 '무임승차'
우리 사회구조 : 돌봄의 수혜자, 참여자,
조달자는 '취약'하고, 돌봄 배제자는
안정적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게 됨.

● 기준 연구에서 본 '돌봄' 문제의식
① 돌봄의 여전한 부재
② 돌봄의 낮은 사회적 가치 책정
③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낮은 사회적 위치

● 기준연구에서 본 '돌봄' 부재의 원인
① 신자유주의 정책
② 핵가족화, 평균수명 증가
③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대한 구조적,
정치적 대응과 변화 미흡
④ 돌봄의 사적 영역화
그러나 돌봄은 모두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적 영역이며 돌봄 없이
사회적 삶, 공동체의 존속 불가

● 본고가 제기하는 '돌봄'에서 필요한 것
: 돌봄의 선순환적 흐름



: (기준)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자각,
인식전환, 필요성 논의
(본고) 실체적, 물질적, 물리적 돌봄의 논의
'몸'을 경유하지 않으면 실질적 돌봄이
불가. 기술, 기계의 발전에도 돌봄 공백의
대체가 인간을 떠나서는 어려운 이유.
'몸'의 사회적 확장인 '장소'를 경유하는
돌봄. 하지만, 장소의 구역-짓기, 통제는
'돌봄의 장소화'를 실현.
보편적 돌봄에서 장소화의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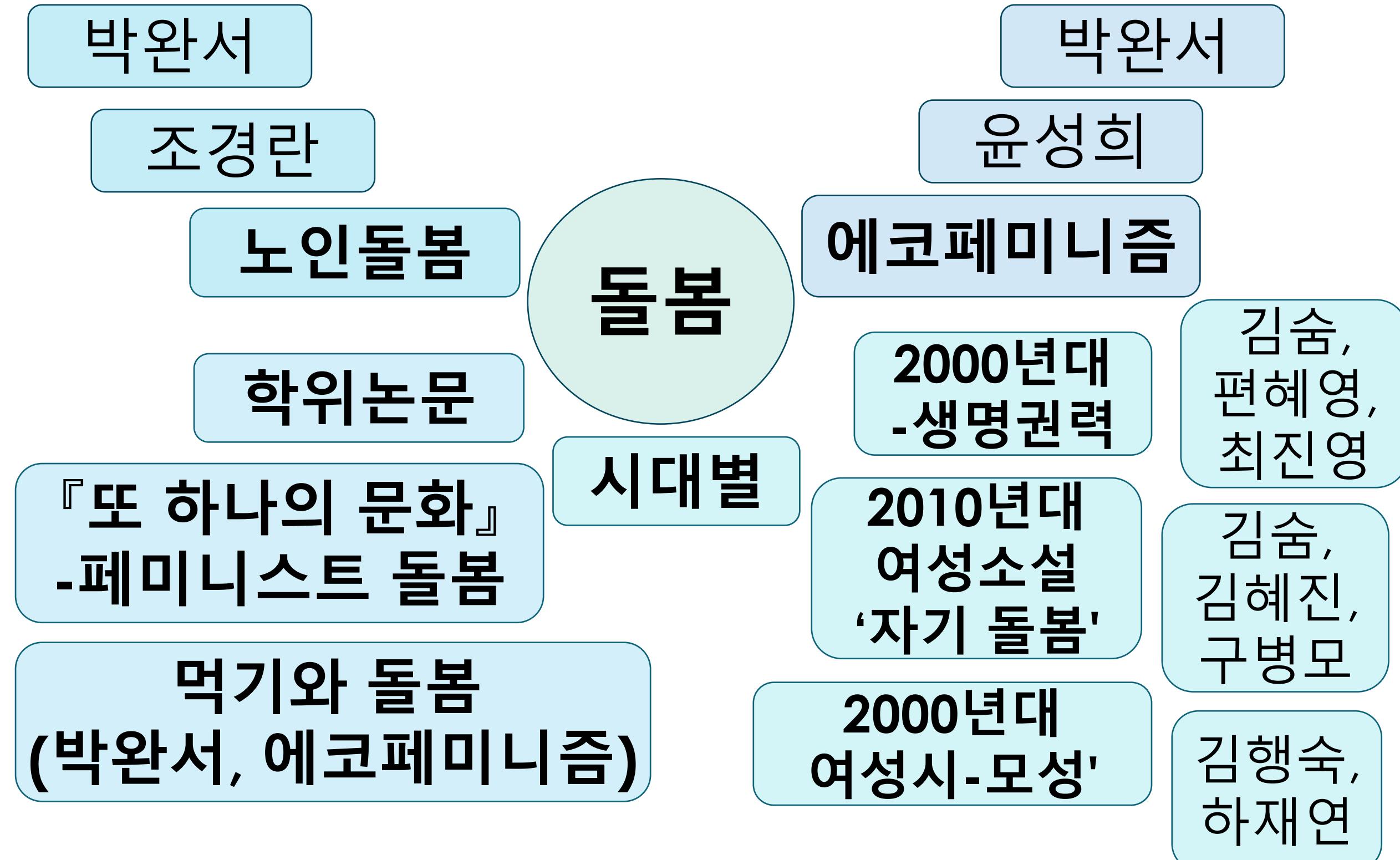
4. 결론

돌봄은 무엇보다 '본질적' 몸을 포함한,
'사회적' 장소에서 수행됨.
"보편적 돌봄"(어디에서나)의
"장소화"(어디에서만)의 문제.

아이 돌봄 = 집
학생 돌봄 = 학교
노인, 환자 돌봄 = 병원
→ 비일상, 예외

경제활동
독립적 주체
일상

2. 돌봄에 관한 문학적 고찰 예시 - 선행연구



3. 보편적 돌봄의 공간적 경계 짓기 : 김혜순의 시

1. 가정에서의 훈육과 돌봄 : 집
현대) 엄마-아빠-자녀의 정상-가족 지향.
이상적 집의 공간으로서 '아파트'
「나의 오아시스 서울」: "콘크리트"로 만든 집에서 "벽
받치는" 아빠(조달자) - "새끼를 치는 엄마"(돌봄 제공자)
- "먹이를 기다리는" 동생(돌봄 수혜자)의 구조 제시
: 콘크리트 (단단함. 외부와 내부를 구분)
「바다가 왔다 갔다」: 생활을 위해 집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과 생활에 전념하는
모습을 묘사. "나는 쓰다듬어 모시던 집에게"와 같은 서울
'돌봄의 안식처로서 집의 이미지'는 사회적 구상이자
허구적 상징물. 누군가에게 '집'은 노동의 장소, 싸움터,
도망칠 곳.

2. 공동체로서 교육과 돌봄 : 학교
「출석부」: 교실은 학교의, 부엌은 여성적 공간의 장소적
환유. 선생-학생 간의 수직적 관계와 위계가 설정되는 곳.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만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학교를 떠나서는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줌.
「유령 학교」: 유령에게도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학교는 개별적 특성은 사라지도록, 일반적 특성은
존속하도록 교육함.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잠적
불가능. 모두가 동일하도록 지도. 우리 안의 어떤 요소는
유령-화 됨.

3. 질병의 치료와 재-돌봄 : 병원
현대의 탄생과 죽음은 모두 병원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아기를 더 이상 낳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 정부는 가임기 여자들 문제가 제일
크다고 공표" 했다. (...) "이 세상은 거대한 병원"
→ 전염병 초기>경리>인원 증가>자가 격리
→ '정상'과 '환자'(질병)가 이분법적으로 존재 X
→ 아픔은 스펙트럼으로 존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의 마지막 필수항목 세 가지」: 화자는 "엄마를
씻겨"준다. 씻김, 기저귀, 재우기= 돌봄의 실천적 수행
→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 타자의 몸으로 수행하는 돌봄
→ '병원의 한정된 생활' = "휴대폰 보기, 텔레비전 보기,
건강한 사람 방문 받기"

<참고문헌>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박영사, 2022.
더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